

# 전당서 발원한 '문화의 샘물' 광주 전체로 힘차게 흐르게

## 고품격 문화수도를 디자인하자

### (1) 문화 인프라

광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핵심현안인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 오는 2015년 개관 예정이지만 광주가 문화 인프라 조성의 시너지 효과를 거두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 지역을 권역별로 나눠 문화인프라를 확충하는 7대 문화권 조성사업에 가속도가 붙지 않으면 문화전당 개관 효과가 도시 전체에 미치지 어렵다는 것이다.

18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과 광주시에 따르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오는 2023년까지 추진되며, 문화전당 건립과 7대 문화권 조성 등 양대 축으로 추진되고 있다. 문화수도 조성사업의 현안인 문화전당 건립의 경우 현재 전당을 구성하는 5개원 가운데 문화창조원·아시

아예슬극장·아시아문화정보원·민주평화교류원 등 주요 건물이 완공돼 내부 시설공사가 진행 중이다. 현재 공정대로라면 2015년 상반기 개관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 문화전당 개관은 '반쪽효과'에 그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광주 7개 권역에 문화인프라를 구축해 문화가 도심전체로 퍼지도록 하는 7대 문화권 조성사업이 사실상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서다.

더욱이 7대 문화권 사업은 광주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전체예산 5조 3000억원 가운데 문화전당 건립·운영비(1조8000억원)를 제외한 3조 5000억원의 대부분이 투입되는 대형 현안이다.

세부적으로 7대 문화권 가운데 문화전당이 건립되는 광주시 동구의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 일원에 건립 중인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내 아시아 예술극장(대극장) 전경. 문화전당은 오는 2015년 개관 예정이며 현재 창조원·예술극장·민주평화교류원 등 주요 건물들의 골격이 완성돼 내부 시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 광주 문화중심도시 7대문화권 개념도



'문화전당권'은 도시의 문화에너지가 광주 전역으로 퍼지게 하는 발아(發芽)지점이다. '아시아문화교류권'은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가 일상적으로 집적, 교류, 생산, 판매되는 공간으로 남구 사직공원과 양림동 일대가 사업 대상지다. '아시아 신과학권'은 아시아의 전승지식과 전승의학의 과학화·산업화를 통해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공간으로 광산구 비아, 첨단지구 일대가 해당된다. 아시아전승문화권(남구 대촌동 일대), 문화경관·생태환경 보존권(무등산·광주호), 교육문화권(서구 마북동 일대), 시각 미디어 문화권(북구 중외공원 일대) 등이 있다.

광주시는 7대 문화지구 조성사업의 재원 확보가 어려운데다 현재 문화전당 개관을 앞당기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는 실정이어서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문화수도 연차별 실시계획을 바탕으로 7대 문화지구 조성사업을 행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우선 문화전당 개관에 총력을 쏟고 7대 문화권 조성사

## 문화전당이 문화수도 인프라 전부는 아니다 도심 권역 나눈 '7대 문화권' 조성 서둘러야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화수도의 품격 갖추자

업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광주시가 7대 문화권 조성사업의 핵심인 예산확보 문제 등 난제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실제 예산문제는 가장 큰 걸림돌이

다. 광주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총 소요예산 5조3000억원 가운데 문화전당 건립·운영비 등 국고지원이 확정된 금액은 2조8000억원(전당 건립·운영비 1조8000억원 포함) 뿐이다. 나머지 2조5000억원은 광주시 자

체재원, 국고지원, 민간자본 등으로 구성돼 있다. 결국, 광주시의 열악한 재원으로는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실제 광주시는 매년 문화수도 조성사업 연차별 실시계획을 바탕으로 7대 문화권 조성사업 예산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지만, 반영 액수는 일부에 그치고 있다. 광주시가 해마다 책정한 문화도시 조성 관련 국고예산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를 거치는 동안 대폭 삭감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기훈 지역문화교류재단 상임이

사는 "5조3000억원이라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예산의 '허상'에 빠져서는 안된다"며 "광주시가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7대 문화권 조성사업은 요원한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 시점에서 문화전당 개관과 전당의 개관 콘텐츠 확보도 중요한 현안이지만, 문화전당은 문화수도 조성 사업의 전부는 아니다"며 "큰 틀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화수도 광주를 바라봐야 진정한 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대형 공연·전시 치를 무대조차 없는 현실 예술도시 광주가 부끄럽다

"대형 공연물인 '미스사이공'과 '레미제라블'은 광주의 공연 시설이 낙후해 무대에 올릴 수 없습니다. 오페라의 유령을 보는 것은 언감생심입니다."

국내 공연 기획사의 대표 황도씨는 광주의 공연 현실을 한마디로 잘라 말했다. 1000석 이상의 대형 공연장은 광주 문화예술회관 대극장 한 곳 뿐이고 그마저도 1991년 개관한 탓에 시설이 낡아 블록버스터 공연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 미스사이공 팀과 레미제라블 공연팀이 몇 년 전 광주 공연을 위해 문화예술회관을 점검했으나, 현재 공연장의 조명시설 등으로는 대형공연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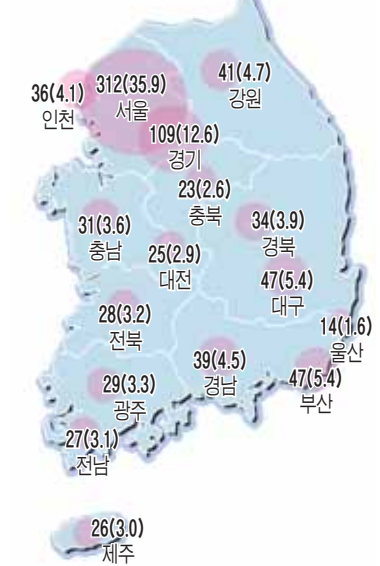
광주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문화수도를 자처하는 광주의 공연시설 등 문화 인프라 확충사업은 제자리 걸음이다.

문제는 문화 인프라 부족이 대형공연·전시를 불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이를 즐기려는 문화 소비자마저 점차 줄어들면서 막상 주목할 만한 공연·전시가 열리더라도 관객이 없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2 공연예술 실태조사'(2011년 기준) 결과 광주의 문화시설(공연시설·공연장)은 모두 29개로 전국 6대 광역시 가운데 3위로 중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지역에 전국 공연장의 35.9%(312)가 몰려있는 등 수도권 몰림현상을 감안 하더라도 광주의 공연시설(29곳)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3%에 그치고 있는 점은 문화도시로서 한계로 지적된다.

무엇보다 공연시설의 질적인 면에서는 타 시·도에 크게 뒤져 있다. 광주가 대형공연장(1000석 이상) 1곳

### ■ 전국 지역별 공연시설 분포 현황 (단위:개%)



### 인프라 부족이 대형공연 막고

### 문화 소비자마저 줄어들게

### 관객없는 공연 악순환 되풀이

을 보유하고 있는 데 반해 인구·재정 등 규모면에서 비슷한 대전은 5군데에 달하고, 대구는 1500석 규모의 전국 최초 오페라 전용극장인 오페라하우스(2003년 개관)를 보유하고 있다.

타 지역에서는 공연 인프라 확충사업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부산시는 부산항만공사로부터 부산역 인근 북항 재개발 사업지역(2만8427㎡)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262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1800석의 오페라 전용극장과 다목적실 등으로 꾸러진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오페라하우스를 2018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공연 기획사의 한 관계자는 "예전엔 대전보다 광주가 공연 관람객이 많았는데 이젠 상황이 역전됐다"며 "대전에서는 대형 공연장이 들어서

고 좋은 공연을 무대에 올리다보니 관람객들이 늘는 등 선순환 구조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미술관·박물관·도서관 등 문화기반시설의 사정도 마찬가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12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량 분석결과'(2011년 기준)에 따르면 광주의 인구 100만명당 문화시설 개수는 28.70개로 서울을 포함한 전국 16개 자치단체 가운데 11위에 그치고 있다. 문화시설은 공공 도서관·등록 박물관 및 미술관·문화회관·지방 문화원 등 대표적인 문화시설이다. 광주의 문화시설 총 개수는 42개로 울산(29)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적다.

세부적으로 광주의 등록 박물관수는 8곳으로 전국 6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다. 인천(22곳)이 가장 많았으며 대전(16곳), 대구(13곳), 부산(12곳), 울산(9곳) 순이었다. 16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권이다.

대구도 전시회를 개최할 공간도 광주시립미술관 한 곳 뿐이다. 작품을 선보일 공공 미술관이 없다 보니 의재미술관, 우재길 미술관, 무등현대미술관 등 지역 작가들이 사재를 털어 건립한 사립미술관이 예향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술계의 각·간접 인프라로 통하는 예술시장도 사실상 개점휴업상태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 동구 예술의 거리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으로 유명무실한 거리가 된 지 오래다. 일부 갤러리가 IMF 경제위기 때보다 더 어려워진 지역 미술계 때문에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예술의 거리를 속속 떠나고 있다.

작가들의 대관 요청은 들어오지 않고, 전시를 하더라도 팔리지 않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